

“구례군 인구정책 통했다” 지방자치경영대상 특별상

1조4000억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
흙살리기 운동 선도 등 성과 인정
전국 지자체 중 구례군만 수상해
“지역의 강점 살리는 구례군 될 것”

구례군이 지난 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구활력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장려하고 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달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더욱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에 구례군이 수상한 ‘인구활력특별상’은 전국 지자체 중 1개 지자체에만 주는 특별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구례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군이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주요 사업은 1조4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였다. 지난해 12월 양수발전소 유치가 성공하면서, 총 6000억원의 자금 유입과 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 성과는 지

역 위기 극복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구례군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도 큰 관심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하고, 정치권과 연대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흙 살리기를 국가적 의제로 관심을 모았다.

군은 화학비료 대신 다시마 액비를 적용한 실증 시험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올해 9월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탄소중립을 통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 유치에 공을 들여 지난해 2643억원이 투자되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군은 정주인구와 함께 생활인구 유치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관광도시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 그간 보전에만 치우쳤던 섬진강의 새로운 관광 거점화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인근 광양시, 곡성군, 하동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1133억원의 사업비 확보에도 성공한 바 있다.



구례군이 지난 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구 활력특별상’을 수상했다. 구례군 제공

오산 케이블카와 지리산온천 골프장 조성 사업도 민자 유치에 성공해 구례 관광 제2르네상스 도약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2026년 전남체육대회 유지를 확정해 스포츠 강군으로서 입지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도시와 차별화된 생활환경 조성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생학습 허브센터를 조성하는 등 평생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으며,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도시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됐다.

특히 군 단위 최초로 카카오통용자전거를 도입해 농촌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것이 당연시된 상황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전입 인구가 진출 인구보다 많아졌다. 매년 자연 감소가 4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분명 희망적인 소식이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순호 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구례군의 그간의 노력이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구례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

장흥군, 여성리더대학 개강 ‘영상플랫폼 셀프브랜딩’ 교육

장흥군은 지난 9일 교육생 40여 명을 모집해 장흥군 보훈회관에서 여성리더대학을 개강했다.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과목을 줄이고 가장 인기가 좋았던 ‘영상플랫폼 셀프브랜딩’ 한 과목에 집중 교육하여 지식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수업은 개강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1회당 3시간) 12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영상플랫폼의 이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콘텐츠 제작 및 전략, 영상편집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장흥군 여성리더대학은 양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 리더를 발굴·육성하는 과정으로 2017년부터 여성리더대학 운영을 통해 28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장흥군은 여성리더대학을 통해 많은 여성 지도자를 양성했고 군의원, 성평등 관련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으로 연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흥=김진환 기자

‘마음 튼튼! 마음 특특!’ 공연 고흥군, 초등학생 대상 실시

고흥군이 9월26일까지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0개소 868명 아동을 대상으로 마음 튼튼! 마음 특특! 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공연은 게임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 따돌림 등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연전문업체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인형극, 버블쇼 및 마술쇼로 집중력을 높여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의 해악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마련했다.

송민섭 기자



고흥군이 올해 하반기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교육 수강생을 19일까지 모집한다. 고흥군 제공

제9대 후반기 장길선 의장 취임 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는 지난 8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 취임식을 개최하여 유시문 의장이 취임하고 후반기 장길선(사진) 의장이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 행사에는 김순호 군수 등 집행부 간부 공직자, 구례군의정동우회 임원, 8개 읍면 이장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시문 전 의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 이임사, 취임사, 구례군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시문 전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길선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2년 동안 가까이 계신 분들이 기쁘고 멀리 계신 분들이 찾아오는 ‘근자열 원자래’ 신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군,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교육 수강생 모집

고흥군은 올해 하반기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교육 수강생(신규 15명, 보수 15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만 56세 이상 군민으로 아이들에게 책 읽기 활동과 봉사에 대한 열정을 지닌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활동은 오는 29

일부터 8월27일까지 매주(월, 화) 이틀씩 5주만에 걸친 교육을 수료하면 책 놀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동 교육 기관 및 복지시설을 방문해 그림책 읽어주기와 만들기 등의 독후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어린이에게는 책 읽는 재미를, 어르신에게는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야기보따리 선생님을

통해 어린이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교육을 희망한다면 오는 19일까지 고흥군립 중앙도서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061-830-6954)으로 문의하거나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www.gllib.go.kr)를 참조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여수시 ‘60초로 즐기는 여수, 솟품 공모전’ 참여 독려

여수세계섬박람회 관심 유도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60초로 즐기는 여수, 솟품 공모전’ 작품 제작 독려에 나섰다.

‘솟품’이란 1분 이내 분량의 짧은 영상을 의미하며, 지루할 틈 없이 직관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게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참신하고 개성이 담긴 영상매체로 여수를 홍보하고,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지난달 ‘솟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여수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담당자 전자우편(gundammk3@korea.kr)으로 22일부

터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총상금은 700만원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총 9편을 선정, 최우수 작품 1편에 상금 200만원, 우수 2편 100만원, 장려 6편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작품 출품은 1인 최대 2편까지 가능하나 중복수상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홍보팀(061-659-3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순천시, 10월31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중소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시에서 20%를 지원하여 1인 소상공인이 최대 10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천시 소재 1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후 순천시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금은 분기별 정산 뒤 지급한다.

또한,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0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공유하며 해당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알람창 게시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출이자 최대 5%를 2년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